

##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장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산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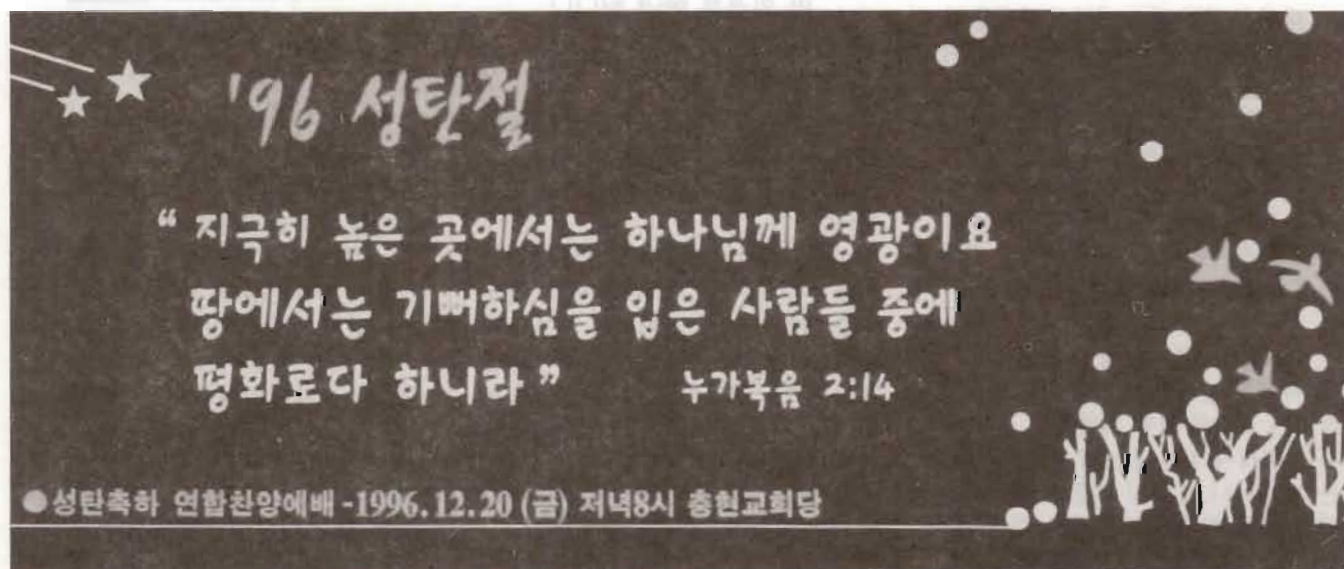
## 1996년 성탄절

##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성탄축하예배 25일, 오전 9시, 11시에 본당에서

25일(수) 저녁은 교회학교 성탄축하발표회로

지난 20일(금) 저녁은 600여명 연합찬양대의 ‘메시아’ 축하연주



1996년도 성탄절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에서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은 이제 온 인류가 지키는 명절이 되었다. 기독교에서는 이 성탄절을 부활절과 함께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다. 이처럼 온 인류의 가장 귀하고 성스러운 성탄절이 이제는 완전히 상업화되어 가고 향락화 되어 가면서 오히려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

성탄절을 맞으며 믿는 우리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경건하고 참된 기쁨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평화와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이다.

교회에서는 지난 20일(금) 저녁 성탄 축하 메시아를 600여명의 연합찬양대가 연주하여 성도들이 본당 1, 2층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5일 성탄절에는 오전 9시, 11시 두 차례에 걸쳐 성탄축하예배를 드리게 된다.

오전 9시와 11시에 드리는 성탄축하예배에는 당회장 김장인 목사가 누가복음 2장 8-20절을 본문으로 '목자들처럼'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전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회학교 각부서에서는 성탄 축하예배 및 성탄축하 프로그램으로 성탄의 의미를 돌아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성탄절 저녁 7시부터는 교회학교 초등 1부~6부에서 준비한 성탄축하 발표회를 갖게 된다.

▲사진은 본당 입구에 세워진 성탄 축하 현관

## '97 신년부흥사경회

1월 6일~10일, 기도원에서

충현기도원에서는 1997년을 맞으며 '97 신년부흥사경회를 개최한다.

이규왕 목사(부산 신평로교회 담임목사)를 강사로 열리는 이 부흥사경회는 97년 1월 6일(월) 밤부터 10일(금) 새벽까지 충현기도원에서 모이게 된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며 시작한다는 것은 1년 동안의 삶을 위해 여러모로 유익할 것이다.

## '96 교회학교 교사총회

12월 26일(목), 갈릴리움에서

'96 교회학교 교사총회가 오는 12월 26일(목) 갈릴리움에서 열린다.

96년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의 출발을 알리는 교사총회는 오후 7시 30분에 교회학교 전 교사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흠어져 1996년의 각 부서 결산을 한 후, 다시 흠어져 1997년도의 편제로 모여 1997년도의 새로운 사업과 예산 등을 살펴보고게 된다.

## ○성탄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다윗 동네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  
아기 낳을 곳 찾아 헤매던 요셉  
과 마리아  
일정한 집이 없어 눈에 띈 초라  
한 마굿간.

포대기에 싸인 채 낮고 천하게  
태어나신

우리처럼 벌거벗은 아기예수  
세상에 오신 탄생의 보금자리 말  
구유.

천국 꿈을 꾸며 방긋 웃는 아기  
의 잠자는 평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왕 아기예수 머리 돌 곳  
없어라.

젖줄따라 찾아 온 이 땅 위에  
목수의 아들로 낮아지고 또 낮아진  
예수는 인성 그리스도는 신성이  
시라.

신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로 태어  
나시던 날

하늘엔 별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땅엔 찬란한 빛의 노래가 가득하  
여라.

영광의 하늘 보좌 두고 가난으로  
내려오신 아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징검다리  
를 놓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우리들 시간에 오신 예수 다 옆  
드려 경배하는

높고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영광 또 영광

땅엔 찬양 찬양, 찬양을 높이는  
평화의 노래.

김 윤 섭(집사, 초등3부 교사)

## ○세모에 교회 앞으로 온 감사편지○

세모가 되어 새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양천지구 루디아전도회에서 지속적으로 제회 학교의 불우한 학생 10여명에게 물품 지원으로 도움을 주시어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교는 한창 밝고 맑게 자랄 학생들이 소년, 소녀 가장으로서 또는 결혼, 결함 가정의 자녀로 여러 가지 불우하고 어려움이 많아 생활이 불편한 학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에 루디아전도회 여러 집사님들이 손수 복식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여 나누어 주고 상담으로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연말엔 김장을 해주시고 송년모임을 가져 아이들에게 선물과 전치를 베풀어 주며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해주신 충현교회 모든 분들께 학교장으로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계속 관심주시기 바랍니다.

1996. 12. 12

정서중학교장 권영철





충헌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 성도의 회개 기도 1

(시편 38:1-10)

**본** 시편은 죄를 범한 사람이 죄값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그 마음에 번민이 생기고 가정에 환난이 일어나며 몸에는 병이 생기고 원수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라가 온전히 통일되었고 이웃 나라들도 하나하나 정복해서 권위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윗은 목동이었던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고 더욱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마음이 안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다윗 왕은 궁전의 2층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결국은 간음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격전지로 보내어 죽게 하고 밋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았습니다.

다윗 왕은 이 일을 누구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 왔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충신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일을 책망합니다. 이 책망을 들은 다윗 왕은 거꾸러져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안타까운 회개를 한 때는 이미 그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셋째아들 압살롬은 만아들 암논을 죽였습니다. 다윗 왕은 어려운 일을 거듭 당하므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38편입니다.

## 1. 다윗의 부르짖음이 어떠합니까

### (1) 사랑의 매로 때려 주옵소서

다윗 왕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사람의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죄를 평계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아서 억울한 마음이 아니니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므로 징계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값으로 죽는 것을 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매를 맞으므로 회개케 하여 용서를 하시려고 때리십니다.

### (2) 영육간에 평안이 없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권세가 당당해서 인간 중에는 손댈 자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손을 대셨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마음의 고통, 육체의 질병, 영혼의 괴로움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죄가 원인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징계로

내리 누릅니다. 하나님이 내리 누르시는데 마치 태산이 누르는 것처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은 죄로 인하여 그 뼈에 평안함이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몸은 병이 들 때도 있고 사업이 실패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대개 세 가지로 인해서 옵니다. 첫째, 죄를 범한 죄값입니다. 둘째,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게 하시려는 섭리로 어려움을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요 9장).

다윗은 범한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으면서 몸에는 병이 들고 마음에는 지옥불이 붙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몸에 병이 들면 몸은 괴로워도 마음에는 기쁨이 생기고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잠시 후면 복이 올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값으로 인해 몸에 괴로움이 오면 마음에 기쁨이 올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괴로움에 빠질 뿐입니다.

### (3) 죄의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솔직한 회개입니다. 발목이 잡기는 정도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허리에 차는 정도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 위를 넘치는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는 솔직한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는 우물쭈물 부분적으로 회개하면 안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가 무거운 짐 같아서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입니다. 짐이 무거운 만큼 힘도 들게 마련입니다. 다윗이 범한 죄의 짐은 너무나 무거워 혼자 질 수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굴러서 내려갈 수 있지만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은 힘겨워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짐을 벗고야 갈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있는 곳에는 냄새가 나는 것처럼 범죄한 곳에는 악취가 나므로 악마가 그 냄새를 맡습니다. 육신이 병들어도 냄새가 나듯이 양심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그 사람의 생활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을 마음 속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를 뿜을 것이고 죄악을 품은 사람은 죄악의 냄새를 피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상한 심령에서 영적인 악취를 풍길 뿐 아니라 육신에도 병이 들어 육신에서도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범한 죄의 냄새를 악마가 맡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천 가지, 만 가지 죄를 범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불법을 행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불의 때문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행하므로 죄를 짓습니다. 셋째,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지혜로운 왕으로 볼 뿐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은 죄인이 죄값으로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므로 여러 가지로 교훈하십니다.

죄를 범하면 때리시기 전에 권면과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가 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생각할 때에도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나니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범하는 죄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 죄를 범하여 남을 괴롭히면 자신은 편안해지는 줄 압니다. 둘째, 자기가 범한 죄를 아무도 모르는 줄 압니다. 셋째, 악을 심고 복을 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자기의 권세가 천 년, 만 년 갈 줄 아는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항상 떨려서 지옥불이 붙는 것과 같습니다. 범죄하는 자는 평안을 자기 손으로 깨뜨리는 바보라는 말입니다.

죄를 범할 때는 재미가 있고 기분이 좋아서 춤도 추었는지 모르지만 죄를 범하고 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나비가 불을 향하여 날아갈 때는 기분이 좋았겠지만 모닥불에 수염이 타고 날개죽지가 타고 몸이 타서 땅에 떨어지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니 없으니 하면서 교만하여 죄를 범하는 사람들 이상 바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 (4) 영육간에 희망이 없습니다

다윗 왕은 죄를 범하고 나니 병이 들고 사람들 앞에 멸시를 당하고 부끄러워 누구 앞에서도 머리를 들 수 없어서 마음에 안정이 안되고 심장이 떨립니다. 눈도 어두워져서 앞이 안보이니 희망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영적 희망이 없어지고 육적 희망도 없습니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 음란한 정욕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 등 어떤 욕심이라도 채워보려고 어리석고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그 죄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만 손해를 끼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은 미처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도 아프게 되고 몸에도 아플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천 번 죽어 마땅한 다윗 왕을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범죄할 때에 탄식하십니다.

자식이 범죄하는 것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상하십니다. 그리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값으로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므로 여러 가지로 교훈하십니다. 자연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의 설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친구의 권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기를 기다리시다가 깨닫지 못할 때에 매를 때리십니다.

죄를 범하면 때리시기 전에 권면과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가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못하면 바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용서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몸의 병이 낫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했던 것도 회복이 됩니다. 아울러 영적인 은혜가 오고 권위가 회복됩니다.

다윗 왕과 같이 간음죄를 안범하고 살인죄를 안범했다 해도 우리 중에는 크고 작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는 불법이요 불의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리석음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없습니까? 또는 부지불식간에 크고 작은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까? 죄의 값은 무겁습니다. 권면과 교훈과 설교를 들을 때에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에 빨리 회개하고 매맞기 전에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 ○ 1996년 결산 / 군전도회 ○

## 군복음화는 민족복음화의 길

군교회 건축, 장병세례식, 군목 지원, 군목수련회 등  
현재 회원 1,020명 내년에는 2,000명의 회원 확보할 터



현 상 민

(목사, 예배위원회, 11교구, 군전도회 지도)

군전도회(회장 김재명 장로, 지도 현상민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이 된 지가 벌써 6년이 되었고, 회원도 1,000명이 넘게 되어 걸음마 단계에서 뛰어 다닐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신 모든 회원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전도회에서는 회원들의 정성 어린 회비를 가지고 올 한 해에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1. 교회 건축 지원 (8개 부대 211,911,200원)

육, 해, 공군 본부교회, 육군 제15연대, 육군 제11연대, 육군 3야수교, 육군 제57사단, 육군 제27사단, 육군 제30사단, 육군 631대대교회

2. 세례식 (16회 9,540명 32,343,600원)

1월 2일 육군 제57사단(350명), 2월 21일 육군 제35사단(450명), 2월 28일 육군 제22사단(200명)

6월 22일 육군 제22사단(200명), 3월 27일 육군하사관학교(150명), 3월 30일 특전사교육단(200명)

4월 5일 육군 제30사단(250명), 4월 13일 육군 제55사단(550명), 5월 8일 육군 ROTC 34기(300명)

6월 19일 육군 제20사단(100명), 6월 22일 육군 제28사단(200명), 7월 20일 육군 제30사단(250명)

8월 24일 육군 제27사단(200명), 9월 7일 육군 제2훈련소(5,500명), 10월 16일 육군하사관학교(120명), 11월 16일 육군 제55사단(520명)

3. 군목전도비 (24,000,000원)

본 교단 장기 복무 군목 13명에게 매달 15만원씩 지원

• 97년도에는 20명 지원 예정

4. 군목후보생 교육 (4,659,000원)

올해 입대하는 전교단 군목후보생을 교육시킴 (4월 9일)

5. 군목수련회 (15,071,000원)

본교단 군목들 가정을 초청하여 전도비 및 겨울철 위문품(커피믹스) 증정 (11월 25일, 설교: 김창인 목사) • 97년도에는 2회 실시 예정

6. 전도용품 지원 (5,919,000원)

해군 작전사, 육군 제15사단, 상무대유격훈련장, 육군 하사관학교, 육군 제8전차대대

7. 위문 활동 (2,210,000원)

육군 제73사단, 해군 작전사, 미전투지원사, 통합병원

8. 가침봉 십자탑 점등식 (5,000,000원)

11월 26일 육군 제21사단에서 거행. 매년 십자탑을 점등하여 북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

9. 군복음화후원회 지원 (3,600,000원)

10. 입대자 기념품 (2,460,000원)

본 교회 성도 중 입대자에게 입대

선물 증정(자녀가 입대하는 성도들은 군전도회로 연락을 바랍니다)

11. 회원 교육 (1,050,000원)

본 교단 군목들을 초청해 특강 실시

12. 기도회, 수련회 (1,900,000원)

13. 회의비 (2,967,400원)

14. 사무비 (1,575,880원)

15. 청년부 전도비 지원 (500,000원)

16. 국제 기독교 군인대회에 재정 지원 (5,000,000원)

총 320,167,080원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정성껏 회비를 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회원이 1,020명인데 내년에는 2,000명 회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한 일들 외에도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바랍니다.

금번 성탄절에는 본 교회에서 입대한 장병들 160명에게 성탄선물을 발송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매년 22만명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전역 후에 가정을 가지고 생활하면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는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군복음화가 되면 민족복음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집니다. 지금도 휴전선 155마일을 우리 대신 지키고 있는 육, 해, 공군 장병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직접 군전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목님들을 위해 기도와 지원을 바랍니다.

특별히 군전도회를 위해 뒤에서 기도와 협조를 해주신 전도위원장 강은원 장로님, 전도위원회 지도 장경철 목사님과 모든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군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

윤 병 국

(목사, 군목단 총무, 소령)



군대 조직에서 지휘관과 참모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참모는 지휘관에게 철저히 주묵한다. 그래서 지휘관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그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참모는 각자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럴 때 그 군대는 성취의 기쁨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다.

신앙적인 일도 그렇다. 영적 지휘관이신 주님을 제대로 받들고자 하면 철저히 그분의 뜻과 소원에 주묵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사로이 자기의 뜻을 내세우거나 자기 교질을 주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은 죄인이 멸망받을 자리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은 해나같이 선교적인 열정을 갖는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잃은 자를 구원하려는 선교 열정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들이 가져야 공동되는 특징이다.

이 점에서 군전도는 하나님의 관심 사항이다. 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젊은 청년들이 올해는 22만명이라는 세례 숫자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다. 그래서 군복음화는 민족복음화라는 말이 나왔다. 군대에서 젊은이들을 잘만 불빛기만 하면 민족복음화는 수치

상으로도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 군목들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다. 10개 교단이 중군하고 있는데 총원 약 340명 가운데 합동측 군목 수는 약 64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단한 숫자이다. 그리고 합동측 군목들은 신학적으로나 종합적인 자질 면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근간에 군대에 신자 장병 관리 프로그램 개발한 일이나, 군목세계에 영성을 불어 넣어 주는 일은 합동측 군목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은 타교단 군목들도 부러워 할 정도로 인정하고 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돕는 후방교회와 성도들의 팀플레이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 점에서 나는 특별히 중헌교회에 감사하고 싶다. 군전도회를 중심한 장로님들과 회원들의 헌신적인 수고가 없다면 이렇게 실천한 총력과 도전을 주는 일은 어렵다고 본다. 당신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군복음화를 위해 군목들과 한 마음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중헌교회 군전도회, 현역이 아니시면서도 현역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복음을 위한 전적인 헌신과 긴장감을 느끼며 다시 한번 깊은 동계애적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이다.

날마다 더욱 번창케 하시고 권세있는 주님의 병기로 좌우하는 군전도회가 되기를 소원한다.

## 군 전도의 현장에서

김 영 길

(목사, 제55사단, 군종참모, 대위)



금년만 해도 팔도의 내노라 하는 젊은이들 만명이 들어오고 또 그만큼이 다녀가는 곳 봉화부대는 지금도 아깝잖아 7백여명의 훈련

병이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훈련에 구슬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일생 중 원색적인 복음을 전지하게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봉화부대 군목은 봉화부대에 발을 들여놓은 젊은이들 한 사람도 거르지 않고 섬 자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영적 간장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잇그제 입소한 장병들을 찾아가 훈련 기간 중 모든 어려움에 친형처럼 도와 주고 기도해 줄 것을 약속하며, 4주 내지 6주간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의 손발이 되어 주며 품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월 있는 세례식 중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천여명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느라 정성과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중헌교회 군전도회 김재명

장로님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가치를 천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시는 중헌교회 군전도회의 군 전도를 위한 헌신은 지금도 천 여개의 진중교회에서와 장병들의 병영생활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합동측 군목들을 초청하여 정성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또 매월 전도를 위한 재정적 후원을 해 주시는 최열한 선교의 최일선에 선 군 목회자들에게 실탄 장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봉화의 신병교육대에는 화이저 추수하게 된 곡식들이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증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번 남은 기간과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진중의 주의 종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충성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사랑 후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12월 21일 아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5백여명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례를 받은 귀한 날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토막소식

▶ 대학부에서는 오는 12월 27일(금) 일일찾집을 연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7일 역삼역 잉카 커피전문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린다.

▶ 청년1부는 24일(화) 명동에서 성탄절 찬양 전도를 실시한다. 매년 크리스마스에 실시해 온 명동 찬양 전도는 20여년 이상 해 온 행사로 전 회원이 명동에 나가 찬양하며 전도를 하게 된다.

▶ 새가족부에서는 오늘 처벌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실시한다. 새가족들에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

는 좋은 기회가 될 이번 찬송가 부르기 대회의 지정곡은 찬송가 115, 122, 123 장이며, 자유곡은 성탄 찬송가 중 택일하여 부르면 된다.

한편 새가족부에서는 교사 중창단을 창단하기로 하고 현재 단원으로 봉사할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다. 각 파트별로 3명씩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임통개 집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 가브리엘찬양대에서는 오는 12월 26일(목) 회고와 전망의 시간을 갖는다.

▶ 임마누엘찬양대에서는 오는 12월 28일(토) 총회를 실시한다.

▶ 직능전도부 회장단 총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 선교관 405호에서 열린다. 신구 회장단은 모두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다.

### 중등3부

#### 성탄축하 초청잔치

중등3부에서는 오는 24일 오후 3시 베다니홀에서 중등3부의 모든 학생과 장기결석생 그리고 새 친구들을 초청하여 '성탄축하 초청잔치'를 마련한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자리, 유익하며 재미있는 이 잔치에 중등3부에 속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두신 성도님들(학부형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참석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 고등부

#### '97 뉴 코이노니아의 밤

고등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갈릴리홀에서 '97 뉴 코이노니아의 밤'을 개최한다. 찬양, 뮤지컬 공연을 통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장이 될 이번 '97 뉴 코이노니아의 밤'에 고등부 회원들은 물론,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도 함께 나와 구주 성탄의 의미를 함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수리남 안석렬 선교사 ▶



사역을 광고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선교의 길을 막는 방해물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미국을 다녀온 이후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순간순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대도 봐두셨으면 큰 고통의 구덩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우리를 사랑과 위로의 날개로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이렇게 힘을 얻어 선교편지를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들어오기 어려운 나라(?)

뉴욕에서 소아과 의사이며, 미동부 한인의료선교부에서 일하시는 박병열 선생을 만나 수리남 이야기를 드리니 11월에 한 번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리남에 돌아와 의료행위와 치료를 위해 필요한 약품통관을 허락해 달라는 공문을 만들어 보건사회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관리하는 의사가 마따나 헤어스플레이트에 의사가 보건의사가 있으니 의사가 올 필요가 없다고 의견서를 장관에게 보냈으므로 결국 11월 13일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의료행위와 약품통관을 허락할 수 없다는 답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월 29일부터 한 주간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자 준비하셨고, 또 미국시민권자이시므로 수리남 여객까지 신청하신 것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치료를 위해서는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있기는 하지만 마따에는 한 달에 이틀, 그것도 오전에만 진료료 하고 헤어스플레이트는 워낙 큰 동네에 보건소가 하나밖에 없어 저희가 나라로부터 땅을 얻으면 진료소와 학교를 지으려고 할 정도로 의료혜택이 부진한데도 반대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전 미국선교단체에서 와서 약 천명의 환자를 치료했다고 하는 기사가 신문에 크게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보건당국이 자존심이 상했고, 또 종교적인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천주교가 공존하며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

에서 이 나라 인구의 1/40에 해당하는 천 명을 치료했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뿐 아니라 다른 선교단체에서도 의사가 왔었지만 약품통관을 서켜 주지 않아 고생하였다고 합니다. 사역을 광고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선교의 길을 막는 방해물의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강하게 선교를 막는 것은 바로 수리남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박 선생님이 오시겠다고 한 그때에 이미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였습니다. 이 위로로 인해 아무도 와보지 않는 곳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오시지 못해도 저희는 낙심하지 않고 다음을 기도하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는 큰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례식 거행

10월 27일 현지인교회는 성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성찬 참여자는 12명이며, 세례자는 1명입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으신 분은 동언(Mr. Dongen)이라는 분으로 현재는 만 79세이며, 네덜란드 군인으로 한국해방시 일본과 한국에 군무한 적이 있는 분입니다. 작년 9월 여름 성결학교를 위해 전도하다가 길 앞을 지나며 교회를 나오시라고 한 마다 드렸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출석할 뿐 아니라, 매 주일 장단에 꽃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또 세례를 위해 성경공부를 할 때 답을 풀고서야 한다고 했더니 전에 많이 피울 때는 하루 두겹씩 피우던 분이 답을 풀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얼마전에는 요도에 이상이 있어 수술을 받았는데 건강하시게 높은 땅고나무에 올라 땅고열매를 따시는 것을 보고 놀랐었습니다. 내년 5월이면 만 80이 되시면서도 성경공부에 열심히 나오시는 '동언'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추수감사절

수리남의 기독교교과 중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파는 별로 없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설교를 짧게 하고 동언 할아버지와 마르호 부인이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언 할아버지의 감사와 함께 마르호 부인의 고백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별히 마르호 부인이 그동안 이단신앙을 좇은 것을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교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짐으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날 헌금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고 미리 준비를 시켰는데 다른 날보다 5배가 더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인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약 100명이 넘는 숫자가 모여 함께 나누며, 감사의 의미를 다시한 번 더 되새기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마따 소식

마따에 시작한 주일학교는 점점 부흥이 되어 10월말에는 성경학교 때보다 많은 53명이 출석하였습니다. 또 도시의 아이들보다 순수하고 말씀도 잘 배울 뿐 아니라, 학교에서는 음악시간이 없는데도 목소리도 좋고 청음능력도 좋아 한 번 들으면 따라 하는 찬송이 참 아름답게 들립니다.

아내가 주일학교를 인도하는 동안 저는 교회 앞 길에서 사람들, 특히 청년들을 만나는 대로 전도하고, 쪽박음을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찾아가는 시간이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라 거의 대부분이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시간이라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차량이 준비되는 대로 평일에 찾아가서 전도를 해야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내년 초에는 장년예배를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인 부도 줄 분에 필요한 사람을 주라고 한 옷, 헌신발 등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안 입는 옷, 가방 등과 함께 나누어 주었는데 베풀어 주는 것이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내년 초에는 장년예배를 시작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 4시반에 새벽기도를 하고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현지인교회 장년예배와 주일학교를 마치면 준비하여 11시반에 마따를 향해 출발, 1시에서 3시까지 주일학교와 전도를 하고 돌아오면 5시가 됩니다. 피곤하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풍성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선교사역을 절실하게 체험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디안사역을 더욱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개미와의 전쟁(?)

어느 주일엔가 마따에 가보니 문짝 두 개가 합판은 없고 페인트 칠한 것이 마치 종이장처럼 붙어 있는 이상한 물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인즉 나무를 파먹는 개미들이 합판 부분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봐두면 건물의 나무라는 나무는 다 먹어버리게 일꾼을 데리고 가서 디젤을 모든 목재부분에 뿌렸습니다. 심지어는 지붕을 드러내고 천정 안쪽까지와 건물 주위의 모든 부분까지 뿌렸습니다. 또 건물 주위의 나무 위에 지은 개미집들을 다 잘라내어 불을 질러버림으로 개미들에게 다시는 침범치 못하도록 겁(?)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도 어렵지만 보전한다는 것 또한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 한인교회 소식

한인교회 목사님이 한인목회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후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총회교회에 의뢰하였으나 당분간 후임자 파송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모님과 장모님은 10월말에 이미 귀국하였으며 목사님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있겠다고 남아 있습니다. 좋은 한인교회 후임자가 와서 함께 동역관계를 가지고 사역하게 되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 수리남 소식

새로운 대통령령이 100일 정책을 내놓고 잘 감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권자인 당수와 얼마나 융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장관들이 결재를 미루고 있어 저희가 신청한 땅 서류가 장관 책상 위에서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지 2개월이 됩니다. 이 허락이 나와야 전료소와 학교에 대한 설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속히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개도를 부탁드립니다.

수리남에서 안 석 렬 선교사 올림